中 전인대, 反부패·反테러법 추진

시진핑 반부패 투쟁 법적 뒷받침…대내외 안보 강화도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수장이 올해 전인대의 중점 과제로 반(反)부패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입법과 반테러법 제정을 제시했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8일 오후 개최된 올해 전인대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9일 보도했다.

장 상무위원장은 우선 올해 중점 과제로 "'반부패 국가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감찰법 개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추진중인 반부패 투쟁을 법률·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시 주석은 그동안 "감히 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는 분위기(不敢)에서 나아가 부패가 '불가능'(不能)하고 '생각조차 못하도록'(不想) 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장 상무위원장은 또 다른 중점 과제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치건설'을 거론하며 "국가안전법, 반테러법, 외국의 비정부조직 관리법, 인터넷 안전법 등의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앞으로 대내외적인 안보와 보안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장 상무위원장은 "올해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과 관련법률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스모그 퇴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앞서 전인대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15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입법법의 수정 초안을 심의했다. '법을 관리하는 법'으로 불리는 입법법의 개정은 법안 도입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사정 당국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조사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중국공산당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8일 홈페이지에서 광둥(廣東)성 제양(揭陽)시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천옌화(陳延華)와 자오칭(肇慶)시 정협 부주석 양융(楊永)을 "중대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광둥성은 작년 처청급(處廳級·과청장급) 이상 관리 97명이 낙마했고 이중에는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장·차관급 고위관리가 2명이나 포함돼 '중대 재해(부패) 지구'로 낙인찍혔다.

이밖에 광시(廣西)장족자치구에서도 지난 6일 천추화(陳秋華) 임업청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고, 윈난(雲南)성 더훙저우(德宏州) 정협 주석이던 멍비광(孟必光)도 지난 5일 사정 당국에 연행됐다. 앞서 중앙기율검사위는 정협 개막일인 3일 홈페이지를 통해 허베이(河北)성 공산당위원회 상무위원인 징춘화(景春華·59) 비서장이 '엄중한 기율위반·법률위반' 혐의로 내부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중국군망(中國軍網)은 지난 2일 권위 있는 군 당국을 인용, 최근 중대사건에 연루된 군급(軍級·장성급) 이상 군 간부 14명의 체포 및 조사상황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체포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궈보슝(郭伯雄·72) 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아들인 궈정강(郭正鋼) 인민해방군 저장(浙江)성 군구 부정치위원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유적지 파괴 막아라" 국제동맹국, IS 공습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이라크·시리아 내 고대 유적지 파괴행위가 잇따르고 있고, 이에 맞서 국제동맹국은 유적지 파괴를 막기 위한 공습에 나섰다.

8일 이라크 문화재청에 따르면 IS가 점령한 이라크 북부에서 세 번째로 고대도시 유적지를 파괴하고 약탈을 자행했다.

니네베주 문화재청 관리인 주마 압둘라는 이날 IS가 이라크 북부의 고대도시 코르사바드 유적지를 폭파시켰다고 전했다. 압둘라는 IS가 코르사바드 유적지에 있는 유물 대부분을 강탈하고, 일부는 폭파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코르사바드는 기원전(BC) 717년 아시리아 사르곤 2세(BC 722~705년 재위)가 도읍으로 세운 곳으로, IS가 장악한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북동쪽으로 15km 떨어졌다.

IS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이라크 북부 고대도시 님루드의 유적을 무너뜨린 데 이어 7일에는 2000년 역사의 고대도시 하트라 유적까지 불도저로 부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한편, 미국 주도 국제동맹군은 IS의 고대 유적 파괴를 제지하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압델 파하드 알셰리샤브 이라크 관광문화재부 장관이 발표했다.

알셰리샤브 장관은 이는 이라크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러, 넴초프 살해 용의자 5명 구속

러시아 당국이 최근 피살된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55) 살해 용의자 5명을 8일(현지시간) 구속하고 이 중 2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용의자 5명은 모두 체첸계로 이 가운데 자우르 다다예프와 안조르 쿠바셰프가 살인죄로 기소됐고 공범으로 지목된 나머지 3명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다다예프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나 나머지 용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바스만니 법원의 나탈리아 무슈니코바 판사는 "자백 외에도 다른 증거를 통해 다다예프가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증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넴초프가 프랑스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옹호 발언으로 살해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람잔 카디로프 체첸공화국 정부 수장은 다다예프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샤를리 에브도 풍자만화에 충격을 받은 독실한 무슬림이라고 밝혀 이 문제가 범행 동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넴초프는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발생 이후 이 잡지가 실어온 무함마드 풍자만화를 옹호했으며, 수사당국은 이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넴초프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조사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4주기 日 원전반대 시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4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2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규모 원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됐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의 피폭량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주요 목표도 개헌·야스쿠니 참배"

日 자민당 창당 60주년 기념 당 대회서 운동방침 채택

아베 정권 4월 지방선거 첫 관문…전후 70년 담화 주목

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해도 변함없이 개헌과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주요 활동 목표에 반영했다.

9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창당 60주년을 기념해 전날 도쿄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헌법 개정을 당시(黨是, 당의 기본 방침)로 출발한 보수 정당으로서의 긍지"를 가슴에 새기고 "개헌 원안(原案) 작성을 목표로 한다"는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운동 방침'을 채택했다.

자민당은 또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이어받아 '부전(不戰)의 맹세'와 항구 평화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명시했다.

자민당은 이로써 일본 내에서 찬반 논란이 큰 개헌을 향한 움직임을 작년보다 구체화했다.

또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주요 과제로 거론해 역사 인식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4월에 집중된 지방 선거에서 올해 첫 관문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베 총리 본인을 비롯해 각료의 정치자금에 관한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상태이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개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원전 재가동 등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에 관한 여론이 표심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당 대회에서 "중요한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정 대개혁을 유예하지 않겠다',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이겨(중략) 일본의 새벽을 확실하게 하자", "우리는 일본인의 생명과 평화를 지킬 책임이 있다. 끊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안보법제를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과제를 의식해 발언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일본 패전일(8월 15일) 무렵에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핵심 표현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새 담화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외교 정책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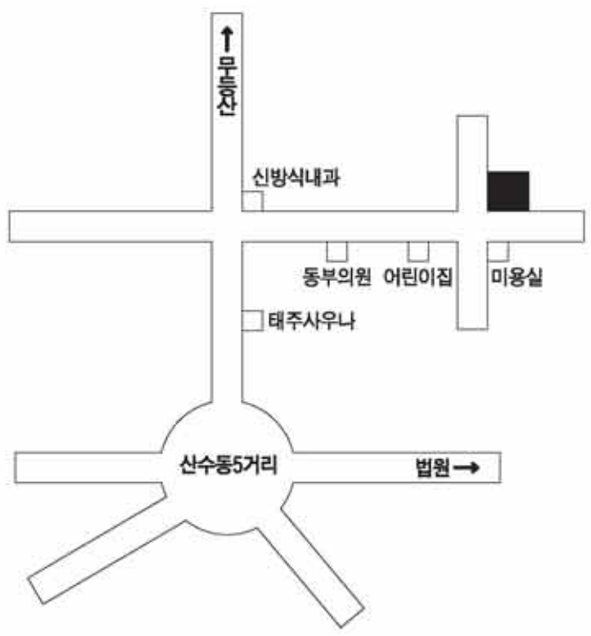
日 40대 남성 흉기 휘둘러…주민 5명 사망

9일 오전 일본 효고(兵庫)현 아와지시마(淡路島) 스모토(洲本)시의 한 산간 마을에서 40대 남성이 인근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녀 5명이 사망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사건 현장은 스모토시 중심부에서 3㎞ 정도 떨어진 산간 마을의 민가 두 곳으로 경찰은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무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이 남성은 경찰에서 "내가 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을에 사는 60~80대 남녀 주민들이다. /연합뉴스

산수동 남양빌라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1억7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급매가 - 6200만원 (3월 20일까지)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010-3605-5000

경매투자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장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